한국보육지원학회지, 창간호, 2005,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 No.1, 2005. pp.167-189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Infant's Delay Gratification, Delay Strateg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최은화(*Choi, Eun Hwa*)*, 조복희(*Cho, Bok Hee*)**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통제성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18-36개월의 영아였으며 만족지연능력 측정 실험은 Mischel(1974)이 고안한 자기 만족지연 실험을 Rha(1999)가 연령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만족지연능력에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직접응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으로 분류하여 관찰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에 의해 개발된 척도의 일부인 통제 13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이 증가하며, 영아가 사용하는 만족지연전략은 월령이 높아질수록 주의분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월령, 만족지연 전략인 직접응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만족지연능력, 만족지연전략, 어머니의 양육방식

* 제1저자 : 프뢰벨 교육기획실 연구원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교수(cho0258@khu.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발달의 성취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과 이론가들은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서 자기조절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모델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조절의 기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Eisenberg & Faves, 1992).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으로 만족을 지연시키는 만족지연능력도 자기조절능력에 포함된다(Flavell, 1977). 다시 말해, 만족지연능력이란 기다려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만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한다(Mischel & Mischel, 1983).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을 설명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의하면,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이 성숙적인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신분석이론가들은 만족지연능력의 연구방법으로 간접적인 지표를 통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즉 Rorschach 반응의 운동 빈도로부터 만족지연을 측정하는 긴급적 지표에 의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인지발달이론에서는 만족지연능력을 아동의 인지적 성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았다. 즉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은 시간조망의 확장과 행동선택의 두 가지 측면인 지연기간과 보상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능력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지연을 하는 시간이 증가됨을 입증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Mischel, 1974; Toner & Smith, 1977; Miller & Karniol, 1983; Vaughn, Kopp, & Krakow, 1984; 허수경, 1995). 인지발달이론을 지지하는 실험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자 속에 과자를 넣어두고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루라기를 불거든 과자를 꺼내어 먹으라고 지시하고, 지시한 순간부터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까지의 시간간격을 5초에서 50초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을 진단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아동이 24개월 되었을 때 1차 실시한 후 6개월 뒤인 30개월에 재실시한 결과, 6개월 사이에 50초를 완전히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ughn 등(1984)은 18개월-30개월 사이의 영아에게 흥미로운 장난감을 주면서 만지지 못하게 했을 때 18개월에는 20초를 기다리던 영아가 24개월에는 70초, 30개월에는 100초로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은 만2세-3세 사이에 상당한 발달이 일어나며 월령이 증가할수록 만족을 지연하는 시간이 증가됨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주었다.

Rotter(1966)의 기대-가치 이론은 사회학습이론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는 만족지연능력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상의 가치와 보상의 발생에 대한 기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한 행동과정에서 기대되는 유용성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각된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지연된 더 큰 보상이나 즉각적인 더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행동 간의 선택은 유용성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때 보상의 지연은 주관적 가치나 주관적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은 이러한 시간적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강화에 대한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지연된 강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어떤 수준의 가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수준은 지연행동에 대한 유용성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연행동을 선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만족지연능력은 지연된 강화가 발생했던 경험이나 발생하지 않았던 경험에 의하여 발달,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Mischel과 Mischel (1983)은 지연된 보상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감은 이전의 약속이행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그리고 기다리는 행동과 다른 형태의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기통제에 대한 과거의 강화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만족지연능력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또래나 부모, 교사 등 사회적 모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실제적, 상징적으로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화경험, 모델 관찰, 훈련에 따른 만족지연행동을 살펴한 연구(Bandura & Mischel, 1965; Mischel & Mischel, 1983)에 의해 지지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자기조절력의 발달적 경향성을 보면 3세 이전부터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만족지연능력의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크다고 했다. 이러한 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서서히 발달하여 11-12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아가 복잡한 통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청년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Vaughn, Kopp, & Krakow, 1984).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에 있어서의 만족지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영숙, 1984; 허수경, 1995)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임, 1996; 안미경, 1996; 안지영, 1998; 최지현, 2000)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만족지연능력에 관련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족지연 행동에 관한 연구(이미라, 1999; 이수연, 1985; 이영미, 1996)가 있을 뿐이다. 만족지연능력은 개인의 지적, 사회적 적응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족지연능력이 시작되는 3세 이전의 영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보상의 가치, 지연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과 모델 관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발달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은 3세 이전부터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큰 만족을 위하여 즉각적인 즐거움을 억제하여 만족을 지연하는 시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은 청소년기까지 계속 이어져 학업 수행능력 및 사회적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족지연능력의 개인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적합한 실험절차를 통하여 영아기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 그리고 이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 어머니의 통제성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영아기의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아의 만족지연전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의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

만족지연전략에 관한 연구는 보상에 대한 주의(attention)와 보상에 대한 관념화(Ideation)가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로 집약될 수 있다. 만족지연 실험에서 보상은 동기적 기능(Motivation Function)과 정보적 기능(Informational Function)을 갖고 있는데, 동기적 기능이란 보상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소모적, 자극적 특성을 상기시켜 주는 기능을 의미하고, 정보적 기능이란 보상조건을 상기시켜 주는 단서적 기능(cue)을 말한다. 소모적 자극은 보상의 맛과 같은 자극적인 면에 초점을 둠으로써 좌절감을 증대시키고 만족지연행동을 방해하는 동기적 기능을 갖게 한다. 반면 보상의 추상적인 면(예: 보상의 형태)에 중점을 두는 비소모적 자극(nonconsummation)은 만족지연으로 생긴 좌절감을 억제시키고, 만족지연행동에서 얻게 될 보상을 상기시킴으로써 만족지연행동을 도와주는 정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Mischel, 1974).

Mischel과 Baker(1975)는 3-4세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련된 보상에 대한 소모적 특징(예: 머쉬멜로우가 맛있다, 달콤하다 등)에 관해 생각하게 한 집단, 선호하는 보상과 관련이 없는 비슷한 물질의 소모적 특징을 생각하게 한 집단, 선호하는 보상에 대한 비소모적 특징(예; 머쉬멜로우는 동그랗다 등)을 생각하게 한 집단, 관련 없는 보상의 비소모적 특징을 생각하게 한 집단과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보상에 대해 비소모적 관념을 한 집단이 보상의 소모적 관념을 한 집단과 관련 없는 물질에 대한 소모적 특징을 한 집단보다 지연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기-주의분산(distractive)을 통해 좌절된 지연상황을 심리적으로 덜 좌절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동이 보상으로부터 주의분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백한 활동과 내적 인지 환상은 아동의 만족지연 시간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또한 만족지연 기간 동안의 인지적 기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ischel, Ebbesen, 그리고 Zeiss(1972)는 3가지 실험을 통해 만족지연 기간 동안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명백한 활동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집단, 즐겁거나 슬픈 생각을 하게 한 집단,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은 집단, 보상에 관해 주의를 하게 한 집단으로 나누어서 주의분산이 만족지연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상에 관한

주의를 많이 한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즐거운 일 또는 슬픈 일을 생각하게 한 아동,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은 아동보다 만족지연 시간이 짧았다. 이는 실제 보상을 향한 주의와 사고가 만족지연행동을 방해하는 반면, 보상의 상징적 표상에 대한 주의(즉 보상에 대한 그림 등)와 보상에 관한 관념화(ideation)는 만족지연행동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정서의 영향도 연구되었는데, Moore, Clyburn, 그리고 Underwood(1976)은 3-5세 아동 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과 슬픔의 정서유발 상황이 만족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즉 아동이 행복 정서를 느낄 때 즉각적 보상보다는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복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슬픈 정서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 정서상태를 끝내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화물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과 일치된다.

앞의 연구들은 만족지연 실험 동안 실험자가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기다림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보상이 있고 없음, 보상에 대한 관념화를 하게 하는 것, 슬픈 생각이나 즐거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등을 통해서 보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만족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만 3-5세 연령의 아동은 만족지연 기간 동안 실제적 자극을 보길 원하고 이런 경향성은 좌절을 증가시켜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만든다. 그러나 보다 연령이 높은 아동은 어린 아동과는 반대로 관련되지 않은 자극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발달과 함께 아동은 좌절적 자극을 피하는 주의전략이 만족지연 시간을 인내하는 데 도움을 줌을 인식하여 관련되지 않은 자극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추상적으로 사물을 다루는 능력이 발달할 때 만족지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인지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미(1996)의 연구에서는 만 6세 유아가 만족지연행동에 도움이 되는 전략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만족지연 시간을 견디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안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유아는 관련보상에 직접 주의하기 보다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서 만족지연 시간을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지연 시간이 긴 유아가 짧은 유아보다 다양한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기다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만족지연에 도움이 되는 전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상에 대한 주의(attention)와 보상에 대한 관념화(ideation)가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즉 만족지연을 위해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자기조절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의 사용이 발달되어감을 증명하였

다. 또한 보상물의 노출에 있어서는 보상이 시야에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만족지연 시간이 더 길어지며 보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 만족지연 시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만족지연전략은 만족지연 시간에 반영되어 더 많은 시간 동안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만족지연능력과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적응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서부터 건전한 사회·정서적 발달이 중요하며, 이러한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의 올바른 인간형성의 모델이 되며,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개체이다. 특히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관계로 유아는 어머니를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행동, 성격 등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유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어머니가 제공하는 환경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

성격발달에 관한 Freud(1910)의 이론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연구와 유아발달에 대한 양육의 영향에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는 유아의 성격은 출생 후 몇 년간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기 유아기 동안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은 어른으로 성장한 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또한 유아기의 이러한 성격유형의 발달은 유아가 성장함에 따른 '사회화'의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발달 맥락에서 중요한 성격유형의 하나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요인, 상징적 표상능력과 자아에 대한 개념 혹은 인지와 같은 아동의 인지 변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Flavell, 1977).

Kopp(1982)는 아동의 자기조절에 대한 문제는 양육자의 역할과 관련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동이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혼자 할 경우는 일부분만 성취하나 양육자와 함께 하면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육자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자 및 그 이외의 사회적 영향이 자기조절의 전반적 발달에 지속적으로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onfeed(1976)는 자기조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주요 대

상, 즉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부모와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기꺼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Baumrind(1967)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태도에 관해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성숙, 유능성, 독립적이며 현실적이고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행동특징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애정과 용납으로 아동을 대한다. 둘째,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보통이고 쉽게 불안정해지며 퇴행적이고 신뢰감이 적고 또래집단에 흥미가 없는 행동특성을 지닌 아동의 부모는 합리적인 통제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며, 자녀에 대한 애정, 동정심이 부족하며, 권위적인 행동을 하며, 부모가 내린 결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셋째, 의존심과 퇴행성이 강하고 자기조절을 못하며, 새로운 경험이나 긴장이 되는 경험은 피하려는 행동특성을 지닌 아동의 부모는 자기신뢰감이 없고 탐구심도 없으며 자기통제력이 없고, 양육태도는 허용적이나 통제를 못하고, 요구도 없으며, 온정적이며 집안일을 해나가는 데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자녀들이 보다 성숙된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이남기, 1995).

Vaughn 등(1984)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개인차가 출현하고 굳어지는 생후 2-3년 동안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내재적 성향을 심화시키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ochanska와 Aksan(1995)은 이러한 개인차를 만들어내는 초기 사회화와 관련된 변인들 중 하나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발달은 일찍부터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양육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모가 유아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처벌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강화하거나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강화된다. 또한 유아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처벌이나 꾸중 등 강압적인 통제방식을 설명이나 타협 등 언어적인 통제방식으로 바꾸어감으로써 유아가 여러 가지 자기통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뿐 아니라 모델로서 부모 자신의 자기통제 행동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중요수단이 된다.

아동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자기통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추미란, 1998; 최지현, 2000; 홍애경, 2000). 특히 추미란(1998)은 유아에게 가하는 어머니의 통제를 유아가 내면화함으로써 유아 자신이 자기통제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며, 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함께 통제적 양육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인 만족지연능력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사회문화적 발달 맥락에서 사회적 유능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조절해야 하는 학령기 이후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일생을 통해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애 초기인 영아기의 어머니의 통제성과 영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하나의 구성개념이 되는 만족지연능력에 있어서 개인 내적 요인이 되는 자기조절 기술인 만족지연전략과 만족지연의 환경적 변인이 되는 어머니의 통제성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이루어졌던 3세 이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만족지연능력과 이에 관계되는 만족지연전략,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성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18-36개월 영아 62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을 18-36개월로 선정한 것은 출생 후 3세 이전에 만족지연능력이 나타나며, 생후 2-3년 동안에 자기통제의 개인차가 출현하고 굳어진다는 선행연구(Vaughn, 1984)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62)

구 분		빈도(%)
영아의 월령	생후 18-23 개월	20(32.3)
	생후 24-30 개월	19(30.6)
	생후 31-36 개월	23(37.1)
성 별	남 아	28(45.2)
	여 아	34(54.8)

형제순위	첫 째	41(66.1)
	둘째이하	21(33.9)

2. 연구도구

1) 만족지연능력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측정실험(Delay of Gratification Experiment)은 Mischel(1974)이 고안한 자기 만족지연 실험을 Rha(1999)가 연령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은 금지된 장난감을 만지기를 얼마나 오래 참는지의 총 시간(초)으로 측정하였으며, 만족지연시 사용되는 만족지연전략 분석도구는 <표 2>와 같이 분류하여 관찰하였다.

<표 2> 만족지연능력에 사용되는 전략

만족지연전략	정 의
직접응시 (Hot Cognition)	금지된 장난감을 직접 쳐다보는 총 시간(초)
주의분산 (Cool Cognition)	금지된 장난감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주의분산의 총 시간(초)

2)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차원은 조복희 등(1999)에 의해 개발된 '자녀 양육방식척도'의 일부인 통제성 13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umrind(1967)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성은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통제성의 Cronbach Alpha는 .71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지역의 36개월 이하 영아 12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영아의 가정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만족지연능력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8개월 미만의 영아는 본 실험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대상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실험도구로 사용된 장난감은 예비조사에서 3가지 장난감을 제시하여 그중 예비조사 대상 영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장난감을 선정하였다. 실험을 실시할 때 관찰자가 직접 촬영을 할 경우,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캠코더를 영아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상 영아의 가정과 보육기관 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1) 만족지연능력 실험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영아 앞에 매력적인 장난감을 보여주고 장난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영아와 래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영아가 장난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확인되면 (영아에게)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장난감을 만지지 않으면 함께 재미있게 놀아준다고 하는 지시내용을 영아가 이해하였는지 다시금 확인한 후 1분간 나갔다가 돌아왔다.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1분) 동안에 보인 영아의 행동을 미리 설치되어 있던 캠코더를 통하여 관찰 녹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실에는 연구대상인 영아 혼자 있게 함으로써 어머니 등의 기타 변인을 통제하였다.

관찰시에는 1) 장난감 만지기를 얼마나 오래 참는지(latency) 금지된 장난감에 손을 대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여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60초) 동안 만족을 지연한 영아를 '만족지연을 실행한 영아'로 선정하였다. 또한 2) 장난감 만지는 것을 참기 위해 영아가 사용하는 만족지연 전략(직접응시/ 주의분산)을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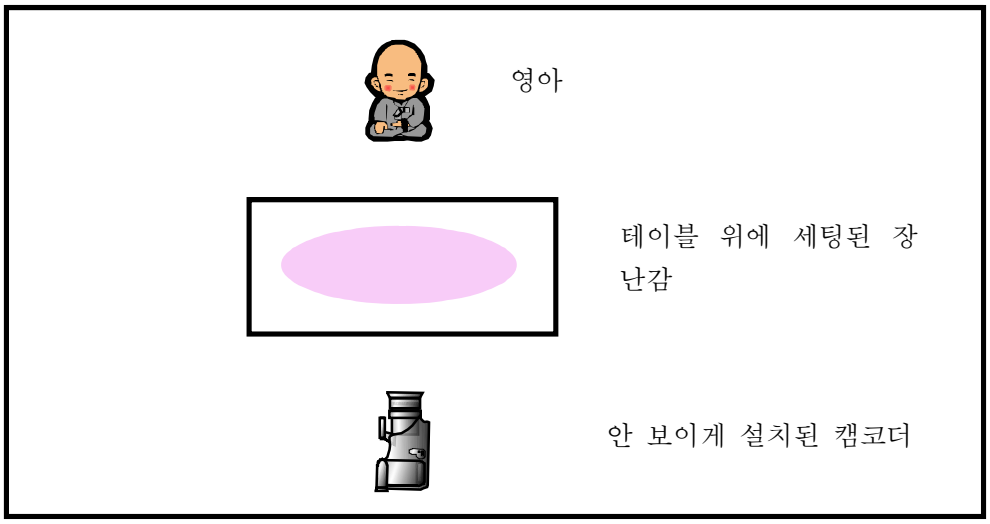
이때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외에 1인의 석사과정 학생이 함께 비디오테이프 자료를 관찰한 후 평정점수를 비교하였다. 영아의 참여장면과 반응행동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5 ~ .94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각의 측정치를 점수화하여 통계분석시 유아의 자기 만족지연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실험에 참여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정 방문하여 실험한 경우에는 방문시 어머니에게 직접 설문하였으며, 기타의 기관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교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보낸 후 교사가 수거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2) 실험환경

본 연구의 실험환경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만족지연 실험 환경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과 F검증 등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영아의 만족지연전략과 만족지연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만족지연능

력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영아의 월령, 성별, 출생순위 등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N=62)

		N	만족지연 총 시간(초)	F (t)
월 령	18-23개월 M(SD)	20	36.40 b (22.34)	*14.84****
	24-30개월 M(SD)	19	54.63 a (7.39)	
	31-36개월 M(SD)	23	57.78 a (4.58)	
성 별	남아 M(SD)	28	49.86 (17.27)	*0.08*
	여 M(SD)	34	49.98 (15.93)	
출생순위	첫째 M(SD)	41	48.76 (17.39)	*1.08*
	둘째이하 M(SD)	21	52.19 (14.45)	

**** p < .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o5)

영아의 월령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만족을 지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8-23개월의 영아들은

만족지연시간이 평균 36.40초로 나타났으나, 24-30개월의 영아들은 54.63초, 31-36개월의 영아들은 57.78초로 나타남으로써 영아의 월령에 따라 만족지연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영아의 월령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이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4.84, p<.001).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4-30개월, 31-36개월의 영아가 18-23개월의 영아보다 만족지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영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만족지연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영아의 만족지연전략

영아의 월령에 따라 남아, 여아 각각 영아의 만족지연전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의 월령별 만족지연전략 (N=62)

		남아(n=28)			여아(n=34)			전체		
		18-23 개월 M	24-30 개월 M	31-36 개월 M	18-23 개월 M	24-30 개월 M	31-36 개월 M	18-24 개월 M	24-30 개월 M	31-36 개월 M
만족지연전략	직접응시전략	17.33	23.50	18.11	18.90	31.22	22.71	18.20	27.16	20.91
	F		*-.11*			*.09*			*1.98*	
	주의분산전략	15.89 b	33.40 a	40.56 a	20.09 b	20.88 b	34.50 a	18.20 b	27.47 ab	36.87 a
	F		*2.77**			*3.70**			*6.55***	

* *p <.05* , ** *p <.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o5)

영아의 월령별 만족지연전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분산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도 남아(F=2.77, p< .05), 여아(F=3.70, p<.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18-23개월의 영아와 24-30개월, 31-36개월의 영아간에 주의분산전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18-23개월, 24-30개월의 영아와 31-36개월의 영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직접응시 전략은 월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이에 사용된 만족지연 전략(직접응시/주의분산)과 어머니의 통제성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만족지연전략과 어머니의 통제성간의 관계 (N=62)

	만족지연 능 력	직접응시 전 략	주의분산 전 략	어머니의 통제성
만족지연 능 력	-			
직접응시 전 략	-.009	-		
주의분산 전 략	.581**	-.688*	-	
어머니의 통제성	.430**	-.063	.310*	-

** p <.05 , ** p <.01*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이에 사용된 만족지연전략 간의 관계에서 만족지연능력은 주의분산 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r=.581, p<.01)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성과 만족지연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30, p<.01)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성과 주의분산 전략 간에도 유의한 정적 관계(r=.310, p<.05)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통제성이 높을수록 주의분산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영아의 만족지연시간이 증가됨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만족지연전략의 하위요인인 직접응

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 간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r=-.688, p<.05)를 보임으로써 직접응시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주의분산 전략은 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3. 영아의 성별, 월령,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성별, 월령,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아의 성별, 월령,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N=6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
	B	표준오차	β	
(Constant)	−22.093	19.531		.263
성 별	.141	2.591	.004	.957
월 령	9.440	3.368	.267**	.007
어머니의 양육방식	2.980	4.269	.356*	.018
직접응시 전략	.678	.124	.616***	.000
주의분산 전략	.866	.111	.930***	.000
R^2		.692		
F *(df)*		17.32(7)		

** p <.05 , ** p <.01, ***p<.001*

영아의 성별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만족지연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성(β =.356, p<.05)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도하는 어머니의 통제성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월령과 만족지연전략인 직접응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월령(β=.267, p<.01)과 직접응시 전략(β=.616, p<.001), 주의분산 전략(β=.930, p<.001)이 각각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아의 월령과 만족지연전략은 그 자체로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아의 월령, 직접응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성으로 이 중 주의분산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직접응시 전략, 어머니의 통제성, 영아의 월령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만족지연전략과 어머니의 통제성이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월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족지연능력의 개인차를 발생하게 하는 만족지연전략과 어머니의 통제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18-36개월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62명이었다.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Mischel(1974)이 고안한 자기 만족지연 실험(Delay of Gratification Experiment)을 Rha(1999)가 연령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실험실 상황을 관찰하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복희 등(1999)이 고안한 어머니용 양육방식 질문지 중 어머니의 통제성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월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있어서 먼저, 월령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월령이 증가할수록 영아의 만족지연 시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지적 성장에 따라 만족지연능력도 발달한다는 인지 발달적 접근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인지적 성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

족지연능력도 발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Michel, 1974; Toner & Smith, 1977; Miller & Karniol, 1983; Vaughn, Kopp & Krakow, 1984; 허수경, 1995 등)와도 일치한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성장과 함께 만족지연능력이 발달한다는 인지발달론적 접근이론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월령, 성별에 따른 영아의 만족지연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만족지연전략 중 주의분산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 보상을 쳐다보는 전략보다는 보상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분산 전략의 사용이 늘어나며, 이러한 전략이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Mischel, Ebbesen & Zeiss, 1972; Mischel & Mischel, 1983; Yates, Yates & Beasley, 1987)를 지지한다.

셋째, 영아의 만족지연전략, 어머니의 통제성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간의 관계에서, 영아의 만족지연전략인 '직접응시 전략', '주의분산 전략'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간의 관계에서는 주의분산전략과 만족지연능력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만족을 지연하는 대기시간 동안 보상에 직접 응시하는 인지적 전략보다는 보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만족지연전략의 사용이 만족지연능력에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분산전략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Mischel & Mischel, 1983; Yates, Yates & Beasley, 198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만족을 지연하는 자기조절의 측면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상에 대한 관심을 회피하거나 줄여 보상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는 영아 나름의 전략을 세워 행동함으로써 만족을 지연시키는 시간이 길어져 만족지연능력이 증가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통제성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머니의 통제성과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성 즉, 영아로 하여금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특성이 아동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영아의 성별 및 월령과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통제성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성별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만족지연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영아의 월령, 어머니의 통제성, 만족지연전략인 직접응시 전략과 주의분산 전략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이러한 변인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69.2%로 꽤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 중 주의분산 전략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응시 전략, 어머니의 통제성, 영아의 월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통제성보다 개인 내적 요인인 만족지연전략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나 어머니의 통제성 또한 간과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36개월 이전의 영아를 대상으로 만족지연능력의 개인차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인 만족지연전략과 어머니의 양육방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고찰되었던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있어서의 일반적 경향과 만족지연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간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8-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월령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에 있어서 각 월령의 해당 영아수를 동일하게 표집, 실험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연구자의 캠코더 촬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가정과 보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의 차이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온정과 통제차원 중 영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성만을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방식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연령이 높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을 함께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지영 (1998). 유아의 자기조절과 대처능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임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 수행능력 및 개인 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남기 (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 과정적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유능감 간의 인과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라 (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미 (1996). 만족지연에 따른 유아의 행동관찰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숙 (1984). 욕구만족지연 생황에서 보상의 제시방법이 보상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추미란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배경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지현 (2000).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애경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수경 (1995).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onfe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y theor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andura, A. & Mischel, W. (1965). Modification of self-imposed delay of reward through exposure to live and symbolic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698-705.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119-150). Newbury park CA: Sage.

Flavell, J. H.(1977). *Cognitive development.* J. J. : Prentice Hall.

Freud, S. (1910).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1.*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 and prohibition,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Miller, D. T. & Karniol, R .(1983). Why Not Wait? A cognitive model of self-imp osed delay ter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35-942.

Mischel, W. (1974). Proces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254-261.

Mischel, W., Ebbesen, E. B., & Zeiss, A. B. (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1,* 204-218.

Mischel, W., & Mischel, H. N. (1983).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 en. *Science, 244*, 933-937.

Moore, B., Clyburn, A., & Underwood, B. (1976). The roll of affect in delay of g 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7,* 273-276.

Rha, J. H.(1999). *Infants' emotionality and parenting as antecedents of delay of gratification in toddlerhood.*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0*(1, whole No.609).

Toner, I. J., & Smith, R. A. (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Yates, G. C R., Yates, S. M., & Beasley, C. J. (1987). Young children's knowledge of strategies in delay of gratific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33*, 159-16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elay gratification, delay strateg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62, 18-36 month old infants, who demonstrate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ay gratification and their mothers.

The instruments of the study were infant's delay gratification and delay strategy were assessed by Mischele(1974) and the parents' responded to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Cho et al., 1999). Data were collected by menas of conducting observations on infants in experimental settings and completing questionnaires with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elay gratification of infants differed accordingly to their age. Older infants displayed increased time in showing their delay gratification, while younger infants relatively exhibited shortened tim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fants' sex and the order of the birth.

2. Following the age factor, the distraction strategy in the delay strategy played a significant difference to infants. Older infants required a frequent use of the distraction strategy in comparison to younger infants.

3. The previous two factors - delay gratification and distraction strategy -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4. The delay gratific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infants' age, parents' attitude, direct facing strategy, and infants' distraction strategy. However, the delay gratification was insignificantly accounted for by infants' sex.

Key Words : delay gratification, delay strateg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2005. 12. 12 접수 : 2005. 12. 22 채택